



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

@FactBrief

CUBS FACT BRIEF | 2016년 7월 20일 |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| 발행인 전삼현 | www.cubs.or.kr

<사회적경제 들여다보기 시리즈 ②>

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

-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

1. 들어가는 말

- 지난 2015년 10월 서울시는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동구매를 2016년 올해에는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, 2020년까지 5%대인 3500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¹⁾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. 이에 본 자료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2015년 사회적경제조직 세부지원 현황을 정리하고자 하였음.

2.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

①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현황(2015.9기준)

(단위 : 개)

계	사회적기업			마을기업	협동조합
	계	인증	예비		
2,689	411	247	164	119	2,159
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을 포함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총 2,689개임.

②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(2015)

(단위 : 백만원)

	사회적기업	협동조합	마을기업	자활기업	기타조직	총계
본청	7,579	2,632	86,125	11,390	2,826	13,153
자치구(25개)	16,380	6,216	7,087	354	8,896	38,935
출연기관(11개)	3,979	271	284	-	717	5,252
공기업(4개)	8,862	507	558	8	1,295	1,295

1)보도자료 참조. http://spp.seoul.go.kr/main/news/news_report.jsp?searchType=TITLE&searchWord=사회적경제&list_start_date=&list_end_date=&pageSize=10&branch_id=&branch_child_id=&pageNum=1&communityKey=B0158&boardId=24967&act=VIEW

-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, 서울시 본청이 총 130억원 정도이며, 자치구 25개를 모두 합한 지원금액이 390억원, 출연기관 11개를 합친 금액이 50억원, 공기업 4곳이 10억원으로, 서울시 전체의 총 지원금액은 **대략 750억원** 정도임.

③ 서울시 사회적기업 세부지원현황(2015)

(단위 : 백만원)

	물품거래비	용역거래비	기타지원비용
서울시 본청	3,559	1,575	2,462
자치구(25개)	4,840	4,108	7,430
출연기관(11개)	786	2,868	325
공기업(4개)	3,701	856	4,303

- 서울시의 세부지원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본청은 물품거래비가 35억원으로 용역거래비 1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, 공기업 4개 기관 또한 물품거래비가 용역거래비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25개 자치구는 물품지원과 용역거래지원이 비슷한 수준이며, 기타지원비용이 7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. 11개 출연기관은 용역거래비가 28억원 정도로 물품거래비 7억 8천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남.

④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현황(2011 - 2015.9)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연도	사회적기업개수	총 계	사회적기업 육성법			서울시 조례
			소 계	인 증	지역형	서울형
2011년	480	400개/3,534명	35개/482명	29개/431명	6개/51명	365개/3,052명
		22,627	2,067	1,882	185	20560
2012년	533	373개/4,038명	105개/942명	77개/715명	28개/227명	268개/3,096명
		15,929	6,594	5,417	1,177	9,335
2013년	433	243개/1,445명	127개/739명	88개/578명	39개/161명	116개/706명
		8,393	6,650	5,240	1,410	1,743
2014년	374	201개/1,138명	201개/1,138명	125개/842명	76개/296명	
		7,300	7,300	5,475	1,825	
2015년	433	180개/760명	180개/760명	111개/548명	69개/212명	
		4,858	4,858	3,284	1,574	

-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. 2011년도에 총 480개 기업 중 400개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반면, 2015년 기준 총 433개 기업 중 180개 기업만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
⑤ 서울시/출자출연기관 사회적기업 구매 TOP10(2015년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순위	지자체	거래업체	구매횟수	거래금액	거래내용
1	출연 및 공사	일촌나눔하우징주식회사	94	2,365	도장공사
2	서울시	(주)구츠	15	1,962	기타물품
3	출연 및 공사	(주)오요리아시아	62	1,793	음식점서비스 외
4	출연 및 공사	늘푸름보호작업장	96	951	화장지 및 기타물품
5	출연 및 공사	(주)블루인더스	563	706	기타물품
6	서울시	(주)레드스톤시스템	3	614	기타물품
7	서울시	(주)착한사람들	1659	518	기타물품
8	서울시	리드릭	1105	479	
9	서울시	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	2	403	기타물품
10	서울시	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사업단 정립전자	11	397	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기타물품

- 서울시/출자출연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거래금액 1위를 한 일촌나눔하우징주식회사는 94건의 거래 중 3건을 제외한 91건이 SH공사와의 거래이며, 2위를 한 (주)구츠는 20여억원 거래금액이 모두 서울시와 거래한 것이며, 3위를 한 (주)오요리아시아는 62건 17억여원의 거래 모두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거래한 것임.

3. 맺는말

-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전체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1000억원에 달한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2015년 서울시 전체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총액은 750억원 가량임. 심지어 서울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 2,689개 중에서도 특정 기업 1,2곳에 15억~20억에 가까운 구매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. 단순히 공공구매의 총량을 늘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게 되면 특정 조직에게 가는 금액만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, 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일부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역차별의 요소가 있음.
- 뿐만 아니라 인건비, 용역지원, 물품거래 등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. 현재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끊어질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자생력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확산되어 갈 것임.